

혈통

The Bloodline

(상속권을 주장한다 - 4편)

누구든지 공식적인 창조 제 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웹 사이트를 찾는 자들은, 그곳에서 오디오 페이지로 (Audio page) 가면, 그대가 상속권에 대한 연속 강의와 몇몇의 부분으로 된 "교회 멤버십" 설교에서 유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이 레슨들을 기록한 저자들이 (이 세상과 하늘) 복음의 기별을 이 마지막 부분에서 상세하게 포함하였다. 이스라엘이 세상을 승리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영원한 왕국으로 승천하기 위한 지파로 인장을 받았다. 이것이 이 기록들 첫 번째에서 3번째 부분들까지 단일화되고 또 이 기록이 최종적으로 모두 함께 합쳐져서 묶어질 것이다.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일을 보여 주겠노라." (사무엘상 14:12) 이것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병기든 자에게 이스라엘의 적이 도전 해온 것이다. 그것이 도전이었다, 이것이 항상 그저 적군에 의하여 도전이 야기된다는 것인가? "이 일 후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는데 내가 들은 첫 음성은 나팔 소리 같았으며,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리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네게 보여 주리라." 하더라. (계시록 4:1) 야께서 계시자 요한에게 올라오라고 부르고, 장래에 있을 계시를 보여주셨다. "올라오라"고 부른 것은 항상 적군에 의하여 야기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이 항상 도전이 된다.

그런 식으로 지금, 내가 이 말씀으로 독자들에게 도전한다. 이 세상이 실제로 따로따로 뒤흔들리고 있다: 이 끔찍한 지구상 위에서, 이 어두운 왕국에서, 강도들, 살인자들, 강간 자들의 행위가 평범한 일이 되었다. 이 마지막 상태에서, 이 지상 자체가 불결한 무거움으로 무너지기 전에, 이 세상과 **악몽같은 바벨론** 제도에서 우리 자신을 분리하여 자유롭게 되라고 우리를 소환하신다. "이리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네게 보여 주리라." 고 하신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써 이 세상에서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 - 이 인터넷 웹 사이트에서 컴퓨터 모니터를 통하여 이 기록들을 읽는 그대는 아마도 이 세상에서 15% 정도에 특권을 가진 자들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우리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중에 아무도 아이가 굶주려 죽는 것을 보지 않았다. 우리가 결코 어두운 뒷골목이나 빈약한 황무지에서 먹을 음식을 찾아다니기 위하여 주야를 소비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우리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호사를 우리 중에 아무도 생각지 않고, 말하기를, "주 야쉬와, 아직 오시면 안됩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그것이 아주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라: 왜냐하면 학대받고 있는 모든 아이들을 위하고, 난폭한 범죄와 성적인 범죄로 말미암는 모든 희생자들을 위하고, 너무 가난해서 가족을 먹일 수 없는 모든 어머니들을 위하면, 이미 매일이 세상 끝이다.

이 세상을 끝마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오... 우리를 도와서, 이 참된 복음을 받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시오. 정신적으로 육신으로 고통 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고, 유산시킨 모든 아기들과 상처받고 괴로워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새로이 죽으셨으니, "주 야쉬와, 빨리 오십시오." 라고 우리가 말합시다. 그렇게 하면 세상 끝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준비하기 위하여 배우자. 우리가 창조로 되돌아가야 한다, 이 지구성에 모든 것들이 창조되었을 때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날 사람들이 참으로 그들이 누구인지 순서대로 배우기 위하여 "그들의 뿌리로 돌아가야 한다." 고 말한다. 내가 그것에 더욱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이 옳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지난 3 번째 기록들에서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가에 대한 3 가지 국면을 검토하였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해한 것은 우리가 야의 백성들이다: 이스라엘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상속인들이다 - 이사야 65장과 66장 또 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설명한 새 땅을 상속받는 상속인들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창조로 되돌아가서 우리의 주체성을 발견하였다: 우리를 가장 높으신 분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그러나 지금 깨달은 것은, 타락 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권력으로 재창조 되고, 또 다시 야와 그분의 천사들의 거룩한 임재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적합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고린도후서 5:17) "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만드노라.'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셨다." (계시록 21:5)

3 번째 기록에서, 우리가 읽은 것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유다 지파이고, 또 그것을 선언한 것이 지금도 그대의 귀에 쟁쟁하므로, 바벨론 꼭대기에서 그대의 마음 속에 강하게 감명 받아서 봉인된 것을 부수고, 그대의 죄사슬들을 벗어 던지고, 그대에게 실제로 제공하는 거룩함과 행복한 생애를, 이 순간에 받아들이고, 또 영원한, 생명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합하게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이 기록에서, 내가 바라는 것은, 그대가 누구인가를 알고 또 이 중대한 개념을

가지고 이 마지막 날을 통과하여 가는 충실한 자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본향으로 돌진하여 새 아침에 이르기를 바란다.

우리가 마지막 때부터 시작한다. 계시록에서 설명한 지상에 마지막 추수가 성도들이 인장을 받는 것이다. "유다 지파에서 일만 이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르우벤 지파에서 일만 이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갓 지파에서 일만 이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다." (계시록 7:5) 네 구절들이 그런 식으로 더 계속되면서, 각 구절에서 3 지파들이 각기. 12의 총계를 이루어 144,000명 가족이 된다. 그렇지만 그대가 주의해야 할 어떤 중대한 것이 있다. 계시록 7:8절에서 마지막 지파가 인장을 받은 후, 어떤 성경절에서도 "그리고 그들 옆에서, 내가 셀 수 없는 다른 무리들이 인장을 받았다." 고 말하지 않았다. No, 계시록 7:9절에서 설명한 구원받은 "큰 무리들"이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다.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라도, 인장을 받지 않았다.

다음 기록을, "시대의 소망"이라고 부른다, 각 교회들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기별을 우리가 읽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사데에 있으면서 자기들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들이 네게 있어 그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이는 그들이 합당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계시록 3:4) 흰 옷을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니는 자들이 인장을 받은 자들과 같지 않는 것에 주목하라. 사실, 사데 시대는 지나간 지가 오래되었고 또 그 시대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 7장에서 "흰 옷을 입은 셀 수 없는 무리"는 참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다, 그러나 그들이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처럼 "살아 남은 우리도"에 속하지 않는다. 이것에 암시는 단순하다: "살아 남은 우리"가 언젠가 인장을 받았다 - 죽기 전에 일찍이 심판에 나아갔고 하늘에 적합하다고 선고받았기 때문에 - 그들이 인장을 받았다

바꿔 말하면, 오직 인장을 받은 자들만이 맨 마지막까지 충실하게 살아남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은, 오직 지파에 속한 자들만이 인장을 받게 된다! 그대는 꼭 이스라엘의 멤버가 되어야 한다, 그대가 인자의 아들이 돌아오실 때 순서대로 살아남은 열 두 지파 중에서 한 지파에 속해 있어야 한다. 나의 이전 기록에서, 마지막 때 모든 지파들이 살아있지 않을 것이다. 고 내가 추측하였다, 어쩌면 어떤 자들은 지나간 시대에 죽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모순이 없다... 비록 마지막 때 12 지파 모두가 활동하지 않을지라도, 살아있는 모든 충실한 자들이 그들 지파의 숫자에 따라서 인장을 받을 것이다. 지금 (무교파) CSDA 교회가 유다 지파다 - 그들이 먼저 인장을 받았고 또 야쉬와와 재림에 안내역을 맡은 사자로써 오르렁거린다. 우리가 예레미야 24:1-7절에서 설명한 파멸에 도시를 떠난 자들이며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행하면서, 안전한 새 땅으로 가고 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우리의 지파를 어떻게 찾아 갈 수 있는가? 그리고 그들에게 "가입"하여야 한다는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여기에서 그것에 대하여 찾아 볼 것이다. 이미 3 번째 기록에서 우리가 이해한 지파는, 말씀 이외에는 다른 어떤 교리도 고수하지 않고, 그리스도 야쉬와 이외에는 참된 지도자가 없으며, 사람들이 고안한 것과 정치상의 조직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행하는 자들이다 - 이들이 오직 혈통에 따라 모여서 의식을 거행하고 (이 경우에 영적인 혈통으로) ? 명확한 유다로 간주하고, 야쉬와 그분 자신의 혈통에 따라 모여서 의식을 거행한다. 우리가 그분의 상속인이고, 그분의 성품이 우리의 유산이다. 우리의 유산이 그분의 유산이고. 우리의 보좌와 우리의 승리는 그분께서 획득하셨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광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리라." (로마서 8:16,17)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우리도 역시 "그분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다. 영 안에서 그리스도와 결혼한 자들은 이 세상에서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이다. "누구든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일백 배로 받을 것이요 또 영생을 상속받으리라." (마태복음 19:29) 내가 제시하는 이 도전이 어떤 독자들에게 엄청난 시험이 될 것임을 자각한다. 여기에서 제공하는 빛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행한다는 의미는 친구들, 가족들, 교우들을 버려야 할 것이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의 경험들을 숙고하시고 그것에 대하여 무감각하지 않으시다. 나도 역시 마찬가지다, 나 역시 옳은 일을 행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자들을 떠나야 했다, 그리하여 내가 통렬하게 야의 희생에 감사드리면서, 그분의 참된 가족의 일 부분이 되기 위하여 그분께서 명하신 것을 차례대로 따르는 것이다. 참으로 자신이 죽어야 한다.

일찍이 우리가 살던 생애를 쉽게 떠날 수 있는가? No. 확실히 어렵다. 자연인에게는 아주 불가능하다. 우리가 일찍이 친밀하게 믿었던 것들과 안락한 관습들이 아주 큰 속박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을 통해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기를 바라노라. 그의 신성의 능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에 따라 그에 관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광과 덕에 이르도록 부르셨으니 이로써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심은 너희로 하여금 이 약속들을 통해서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베드로후서 1:2-4) Yes, 정욕 - 세속적인 욕구; 안락하고, 안전을 위한 소망 때문에 그대의 영혼을 희생할 것이고, 혹은 그대가 부르심을 받고 영혼들을 도와서 회중 안으로 모이게 할 것이다 - 참으로 이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이 빛에 거룩한 부르심을 피하였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참으로 이길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고 말하였다, 정확한가? 글썄, 만일 우리가 그 입장이면,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잘 숙고하여야 할 것이다: "온 이스라엘이 계보대로 계수되었으니, 보라, 그들이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책에 기록되었더라. 유다는 그들의 범죄로 인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갔더라." (역대기상 9:1)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이 기록에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하기를, 비록 그 왕들이 그 책들에 계보를 소유한 자들일지라도 "그들의 범죄로 인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그 계보들을 소유했던 그 왕들, 이스라엘과 유다가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끌려갔다. 이것이 잘 알려진 이야기 같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는데, 히위인 하몰의 아들, 그 지방의 통치자인 세켄이 그녀를 보고 그녀를 끌어들이어서 그녀와 동침하여 그녀를 더럽히니라. 그의 혼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가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 소녀에게 다정하게 말하더라." (창세기 34:1-3) 이것을 이런 식으로 연결한다: 순결한 여자, 디나가, 그녀의 형제들과, 아버지의 안전한 곳을 떠나, "그 땅의 딸들"을 방문하러 나갔다. 그녀가 당한 끔찍한 일이 그녀에게 책임이 있다고 내가 말하지 않은 것을 명심하라, 그러나 - 만일 그녀가 그곳에 가지 않았더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을 마지막 날에 연결하면, 우리가 이것을 소유하고 있다, "그가 나를 영 안에서 광야로 이끌어가니라. 또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주홍빛 짐승 위에 앉아 있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졌더라.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머니라.' 고 하였더라." (계시록 17:3,5) 우리가 본 것은 바벨론의 신비가 "창녀들의 어머니"다. 그녀의 딸들은 영적인 "창녀" 조직들이다. 엘렌 화이트가 SDA 교회를 반대하여 "타락한 바벨론의 자매" 라고 경고하였다. 이는 우리에게, 도처에 있는 "땅에 딸들"과 함께 동료가 됨을 반대하는 경고를 한 것이다.

다시 한번, 창세기 6:1-3절에서 셋의 고결한 후손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함께 결합하여 불결하게 되었다. 근대 영적인 이스라엘을 고찰하면, 그들에게 전해진 그 경고들을 주의하지 않았고, 그 비유담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제 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는, 야의 눈 앞에서 은혜를 받은 이유로, 그들이 교만하여진 동기가 되어 야께서 "땅의 딸들을 보러 가는" 것을 허락하였다. 안식하는 안식일이 떠났고, 세상으로부터 분리하는 안전에서 떠났으며, 그들이 속았고, 또 세상과 함께 누웠으므로, 그들이 더럽혀졌다. 재림교회 그 자체가 세상에 권력과 법적인 영향력을 취하였고, 모든 다른 국가와 - 다른 교회 교파들의 진로를 따라 갔다, 그리고 디나처럼, 세상이 그녀를 사랑하였다! 세상의 왕들이 그녀와 함께 간음을 행하였고, 또 "그 소녀에게 다정하게 말하였다." 서류에서 읽은 것처럼, 지금 현재, 교회의 "머리"가 (대총회, 이 지점에서 그리스도가 아니다) 교파의 전체적인 이익을 위하여 제 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명칭을 - 등록상표 매매 표로 만들었다) 이스라엘 주민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물론, 등록상표로 배교한 것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스라엘이 승리하지 않았다 - 이 자연적인 결과가 참으로 문제가 된다. - 만일 그들이 승리하였더라면, 이 사악하게 처신한 에피소드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비록 SDA 교회가 정부와 결합한 사이를 폐기한다고 할지라도, 또는 비록 SDA가 나중에 법정 소송을 취소하기로 결정할지라도... 그 독소가 그 안에 여전히 남아있다. "만일 그 나중 남편도 그녀를 미워하여 그녀에게 이혼증서를 써서 그녀의 손에 쥐어 주고 그의 집에서 내보냈거나 혹은 그녀를 아내로 취한 그 나중 남편이 죽었으면, 그녀를 내보냈던 전 남편은 그녀가 더럽혀진 후에는 그녀를 자기 아내로 다시 취할 수 없나니 이는 그것이 주 앞에 가증한 것이기 때문이다.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시는 땅으로 죄를 짓지 않게 할지니라." (신명기 24:3,4) 이 경우에, 비록 SDA가 세상과 관계를 끝낼지라도, 그 여자는 더럽혀졌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다시 결합 될 수 없다. 이는 상속권이 손상되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 기록이 이것에 대한 모든 것이다.

비록 우리가 명확하게 "제 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명칭을 소유한 이유로 더 이상 박해를 당하지 않을지라도, CSDA 교회는 성경에 있는 다른 교리들과 함께, 여전히 승리에 대한 가르침을 지속할 것이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대총회가 우리를 고발할 것이며, 이는 우리가 유일한 그 명칭을 불법으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재림교 믿음의 교리를 잘못 전한다는 이유가 될 것이다. 내가 최초로 이것 사이에 다른점을 설명한 것은, 제 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대총회 뿐만아니라, 그 외에 CSDA와 광대한 깊은 골짜기 사이에서 분리된, SDA에서 '갈라져 나간' 어떤 다른 단체들과 또 참으로 세상에서 모든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자들이다. 우리가 죄를 이기고 승리를 획득할 수 있다고 유일하게 가르치는 자들이다,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소유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행한다 - 우리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유일한 자들이다. 우리가 세상과 교회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 의하여 미움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침례 요한처럼 그들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3:2)

그들이 말하기를 "무엇이라고? 우리가 이미 기독교인들이고,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그대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라고 할 것이다. 우리가 교회 지도자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오 독사들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다가오는 진노에서 피하라고 경고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고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너희 속으로 말하려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느니라. 또한 이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리라." (마태복음 3:7-10) 계시록 17:3-6절에서 여자가 (많은 머리) 교파들의 짐승을 타고 있는 것을 속고하라. 지금 그대가 이것을 읽기 바란다: 천사가 계시로 요한에게 충실하지 못한 여자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그가 말하기를, "네가 그 짐승에게서 본 열 빨은 그 창녀를 증오하며, 그녀를 **폐망시키고 벌거벗기며, 그녀의 살을 먹고 그녀를 불로 태우리라.**" (계시록 17:16)

그것이 빨들이다, 그 빨들이 지도자들이고, 그들에게 대부분의 잘못이 있다. 짐승을 타고 있는 그 여자가 몹시 취하였고, 속았으며, 감각이 없기 때문에 멸망한다. 독자들이여, 그들이 원하는 숫자들과, 명성과, 부귀가 그녀를 비참하게 만들고 또 이것으로 말미암아 벌거벗겨졌다: 그들이 그녀의 살을 먹고 불로 태울 것이다. - 바꿔 말하면, 그들이 그녀를 **파괴**할 것이다. 독자들이 지금 그것을 보고 있다, 평신도가 우리의 적이 **아니다!** 야께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모든 사람들을 사랑한다 - 그러나 그들이 이것을 순서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들이 그들의 타락한 조직들에서 **반드시** 나와야 한다! 지도자들도 참으로 우리의 적들이 아니다, 그러나 요한이 말하기를, 그들이 그들 자신들을 겸손히 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 때문에 계시록 18장 4번째 천사의 기별을 내가 자주 인용하였다... 참으로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하여 이 기별을 받은 즉시 반드시 그곳에서 **나와야 한다!**

"혈통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기독교인들이 되시오. 창조주를 경배하고, 그분께서 그대 안에서 역사하시는 새로운 마음을 활용하여 승리의 기별을 받아들이시오," 라고 우리가 말한다. "뭐라고?" 그들이 다시 말하기를,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아니라고 지금 그대가 말하였는가? 이는 사탄이 건방지게 말한 것이다!" 고 한다. 서기관들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가 바엘세불에 들렸다. 그는 마귀들의 통치자를 힘입어 마귀들을 쫓아낸다." (마가복음 3:22) 또 다시, 그 지도자들이, 특히 우리의 기별을 반대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대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 자신의 모든 죄가 죽었다고 (갈라디아서 2:20절과 다른 구절들로) 걱정하지 않고, 그대가 "십자가에 못박은 생애"를 살지 않으면, 그분께서 그대에게 원하시는 생애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대는 완전히 개심한 기독교인이 아니므로, 우리가 주장한 것들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분노하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심문 당하시는 동안에 베드로처럼, 그대가 그분을 사랑할 것이다, 그대가 그분을 뒤따를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여전히 언어들로 행위로 그분을 "때때로" 부인할 것이다. 아마 야쉬와께서 그대와 함께 보행하시고, 어쩌면 그분께서 이 순간에 그대를 운반하고 계실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승리를 주장할 때까지, 그분께서 그대 **안에** 거하실 수 없다. 이것을 위하여 그분께서 죽으셨다, 이것 때문에 그분께서 승천하신 후에 우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 주셨다. 이것이 복음이다.

어떤 자들이 안식일 진리를 이해하였다, 그리고 거기에서 중단하였다. 어떤 자들은 죄를 승리할 수 있는 기별을 이해하고 거기에서 중단하였다. 어떤 자들은 이것들 둘 다 이해하고 거기에서 중단하였다. 어떤 자들은 그것들 둘과 CSDA 기별이 참되고 성경적임을 확신하고, 그들의 부패한 조직들을 떠날 것이다. 그들이 잘 단행하였다. 지금까지 그들의 행한 것들과 결심한 것들로 승리한 것이 **나타났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이 다만 자유로울 뿐이다, 그들이 - 아직도 - 인장을 받지 않았다. 그들이 자유롭게 인장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이마에 야의 이름이 기록되기 전까지는, 그들 지파의 이름에 따라 연합하기 전까지는, 그들이 144,000명 숫자 중에 하나가 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살아있는 자들의 심판을 통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이 끝에 가서 구원될 것인가? 만일 그들이 순서대로 CSDA의 명칭을 택하여야 하는 중대함과 짐승의 표를 항거하여야 하는 중대성을 정직하게 깨닫지 못하였다면, 어쩌면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이것을 행하고자 하는 욕망이 없으면서 어떻게 그들이 참된 복음을 들을 수 있을 것인지 내가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야쉬와 홀로 마음들을 판단하신다.) 그들이 여전히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 하늘에 적합한 자들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직접 하늘에 갈 수 없다; 오직 144,000명만이 죽음을 맞보지 않을 것이고, 또 실제로 이 144,000명 모두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유다 지파 "사자가 으르렁거린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이 땅으로 돌아오시라고 부르는 소리다.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모든 가증한 것들로 인하여 탄식하고 울부짖는" 자들이다 (에스겔 9:4) - 그들이 안식일의 영을 버리고, 이집트에 내려갔고 머리되시는 그리스도를 저버렸다. 우리가 계시록 18장 4번째 천사로서 선언하기를 "그녀에게서 나와라,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로 취한 까닭에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또 땅의 상인들은 그녀의 사치의 풍요함으로 부유하게 되었도다.'" (계시록 18:3) 충실하지 못한 여자가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유다에게 말하기를, "그의 눈은 포도주로 붉을 것이며 그의 이는 젖으로 하얗게 되리라." (창세기 49:12) 우리가 멸망의 가증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포도주로 붉게 되었다. 교회가 결과적으로 그녀의 남편을 버린 끔찍한 배교에 항거하면서 우리의 눈이 눈물로 인하여 붉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의 이는 젖으로 하얗게 되었다. 우리 자신들이 이 끔찍한 죄에 참가하지 않았다, 우리가 나와서 분리하여 서있다. 우리가 상속받을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과 큰 [땅]'으로부터 마셨다. (출애굽기 3:8)

"연합은 어떻게 되는가?" 라고 그들이 항거한다. "관대함은 어떻게 되는가? 그대가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주장하면서, 여전히 우리에게 분리와 슬픔을 가져온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라고 한다. 이것이 큰 사명을 따르고 있는 우리로부터 왔으며, 이런 식으로 응답한다, 에스겔 9:4절에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들의 이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이 (계시록 7), 우상 숭배와 진화론으로 진리의 가치를 저하시키고 타협하기에 만연하는 모든 현대

교회들에게 항거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선언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노라." (마태복음 10:34) Yes. 야쉬와 우리 구세주께서 증으로 이 지상에 초립하셨다. 그러나 그분이 재판장과 왕으로 재림하실 것이다. 크고 두려운 날이 급속히 다가오는 이 때에, 어떤 가장 작은 문제일지라도, 우리가 빛 가운데에서 타협할 수 있는 여유가 있을 수 있는가?

우리가 조금 뒤돌아 가본다. 오직 승리가 그대를 자유롭게 할 것이고, 인장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이 요점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승리 그 자체가 완전히 갖춰진 것이 아니고 완성된 것도 아니므로 봉인되지 않는다. 우리가 계시록 7장에서 이해한 것은, 오직 그들의 지파에 따라서 인장을 받는다, 혈통을 이어서 엘리야와 이녹의 방식으로 승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대가 말하기를 "OK, 그대의 교리가 아주 이론적으로 옳은 것 같다." 보다 적게 관습에 묶인 어떤 자들이 듣고 말하기를, "그러나 실제로 그대 교회에 가입하는 것이 어떻게 대단한 일이 될 수 있는가? 내가 속해있는 우리 교회가 이미 12 지파들 중에 하나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기 3번째 기록에서, 우리가 검토한 것은, 지파 안에 있는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내가 처음부터 말하였다.

역대기상 9:1절, 첫 부분 기록에서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계보대로 계수 되었다" 그러나 다시, 그것에 대하여 특별하게 말하는 것을 주목하면, 왕이 소유한 이 명부에 있는 지파들과 그들의 멤버들이 바벨론에 잡혀갔다. 지금, 우리가 학개에서 이것을 본다. "주께서 스알티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영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영과 백성의 모든 남은 자의 영을 움직이시니, 그들이 와서 만군의 주, 곧 그들의 하나님의 집에서 일을 하였더라. 이는 다리오왕 제 이년 유월 이십사일이라." (학개 1:14,15)

스룹바벨 왕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아래에서, 야의 성전이 재건되었다. 여기에 아주 재미있는 기록이 있다: 그 이름 여호수아 (이 이름이 실제로 그리스도의 이름 야쉬와와 같다) 그 뜻은 "야는 구원자시다." 그 이름 스룹바벨의 뜻은 "바벨론에서 태어났다." 그대가 이것을 깨닫는가? Yes,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잡혀갔다; 현대 3 천사들, 제 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가, 법조계의 함정에 빠진 두 번째 짐승이, 세상에 의하여 붙잡혀갔다. 그러나 바벨론에서, 여전히 CSDA 교회가 부르심을 받고 나왔다. 우리가 "바벨론에서 태어났다," 그러나 우리가 해방되어서 야쉬와 (우리 구주께) 돌아왔고, 또 성전 벽을 재건하기 시작하였다. 이 영적인 성전이 완전히 건설되면, 144,000명이 모여져서, 인장을 받게 되고, 우리 주께서 오실 것이다. 어떤 자들이 말하기를, "그대가 무엇이든지 행하는 대로 그리스도의 재림이 결정될 것이라고 어떻게 그대가 말할 수 있는가?" 기독교도 세계 절반도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고 한다. 우리가 말하기를, "기록하였으되 - 이 왕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14) 이 "성전 재건"에 대한 유사점을 나중에 검토할 것이다, 그러나 우선은 이 명백한 원칙이 충족하기를 기도한다.

유다의 총독 스룹바벨에 대하여 뭔가 다른 것을 말하였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오 스알티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주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를 인장같이 만들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학개 2:23) 유다의 지도자를 인장으로 - 봉인한다고 선언하였다. 지금 그 "인장"에 대한 언어 자체가 재미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아들을 의미하고 유다의 권력을 상징한다, 창세기 38장에서 그 사람이 자기의 인장을, 성적인 이익을 위하여 타말에게 팔아버렸다, 그러나 출애굽기 28:21에서 기록되었으되, "이 보석들에 이스라엘 자손의 이름들을 있게 할지니, 열둘을 그들의 이름들에 따라 마치 인장을 새기듯이 할 것이요, 각 보석에 열두 지파에 따라 그 이름이 있게 할지니라." 이 개념을 출애굽기 39:14절에서 다시 한 번 되풀이 하였다.

이스라엘을 12 지파로 나누어, 관련된 인장들을 언급한 것 이외에, (출애굽기 28:36, 39:30절에서 제사장을 특별한 타입으로 언급하였다) 오직 유다 지파에게 이 명예를 강조하였다. 거룩한 성경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단계적으로 유다의 인장 또는 봉인을 다룬다. 계시록 7장에서 우리가 이해한 것처럼 유다 지파가 첫 번째로 인장을 받은 그 이유는 단순히 유다 지파가 인장을 소유하였기 때문이다. 만일 마지막 날에 다른 지파들이 인장을 받아야 할 것이라면, 그들이 유다에게 와야 하고, 또 유다를 통하여 순서대로 인자의 아들의 재림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아직도 지파를 소유하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것인가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았다, 그렇지 않은가? 좋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성전을 재건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숙고하자. 느헤미야가 건축물을 완성한 것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였다. "나의 하나님께서 내 마음 속에 생각을 넣어 주사 귀족들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함께 모아 그들을 계보대로 계수하게 하시기에, 내가 처음에 올라온 자들의 계보의 명부를 찾았고 거기에 기록된 것을 찾았노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전에 끌고 갔던 자들이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 각자 자기 성읍으로 왔는데, 그 끌려갔던 자들 중에서 사로잡힘에서 놓여 올라온 지방의 자손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스룹바벨, 예수아, 느헤미야, 아사랴, 라야마, 나하마니, 모르드캐, 빌산, 미스페렛, 비그왜, 느흠, 바야나와 함께 왔더라.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들의 수는 이러하니라." (느헤미야 7:5-7) 그리고 긴 명부의 가족들과 이름들이 따랐다.

이 명부 마지막에서, 우리가 이것을 발견한다, "제사장들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코스 자손과 바르실래 자손이니, 바르실래는 길르앗인 바르실래의 딸들 중 하나를 아내로 삼고 그들의 이름을 따라 불렀더라. 이들이 계보에 기록된 자들 가운데서 그들의 명부를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이 부정하게 여겨져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고." (느헤미야 7:63:64)

그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다, 계보의 기록에서 그들의 이름들을 찾을 수 없었다. 그들이 바르실래의 딸들 중 하나의 이름을 따라 불렀다, 그러므로 그들이 최초로 바벨론으로 잡혀갔을 때,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들의 계보의 출처를 밝혀낼 수 없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도 산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 (베드로전서 2:5) 위에서 144,000명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에 대하여 내가 언급한 것을 그대가 기억하는가? 이것이 그 힌트가 된다 - 우리가 참된 성전으로 지어지는 돌들이다. 그러나 슬프게도 (또는 어쩌면 다행히), 오직 그들 지파에 따라 인장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대저택을 위하여 세심한 조사를 받고, 건축물 자료의 적격자로 증명된 자들이다.

다니엘과 요한; 두 증인들이 심판에 대하여 비슷한 것들을 말한다. "내가 보았더니 보좌들이 놓여 있고, 옛날부터 계신 분이 앉으셨는데, 그분의 옷은 눈같이 희고 그분의 머리털은 순전한 양모 같더라. 그분의 보좌는 불타는 불꽃 같고 그분의 바퀴들은 타는 불 같더라. 불같은 강이 흘러 그분 앞에서 나오니 수백만 명이 그분을 섬기고 수천만 명이 그분 앞에 섰는데, 심판이 준비되었고 그 책들이 펼쳐졌더라." (다니엘 7:9,10) 그리고 다시,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누구든지 생명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계시록 20:11,12,15)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두 경우에 "책"이 펼쳐졌다. 책에 기록된 사람들의 이름이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받으신 바 되었고, 또 다른 자들은 슬프게도 물리침을 당하였다. 의심 많은 사람이 항거하기를, "그러나 여기를 보라, 이미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다. 여기 이 지상에서 그대의 지파 안에 있는 백성들 중에 하나로 기록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글썄, 내가 어떤 사람의 이름이 하늘 책에 기록되었거나 안되었거나, 논쟁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어떻게 감히 그럴 수 있는가) 그러나 "그러므로 너는 오늘날 이것을 알고 네 마음 속에 숙고할지니, 주 그 분은 위로 하늘에 계시며 아래로 땅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며 다른 이는 없느니라." (신명기 4:39) "주 기도문"에서 이 운필이 기록되었다,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10)

이 모든 성경 구절들이 아주 적합하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노골적으로 말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기별이 마지막 교회 시대를 선행한다,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열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또 닫으면 아무도 열 수 없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신다." (계시록 3:7) 그리고 복음서에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천국의 열쇠들을 너에게 주리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또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16:19) 여기에서 다시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또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지리라." (마태복음 18:18) 그 원형을 분명하게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아버지의 뜻이 되는 문제가, **묶이거나 풀리는** 문제들이 되고, **받아들여지거나 거절당하는** 문제가 되며, 오직 지상에서 증언된 것들이, 하늘에서도 효력이 있게 될 것이다. 또한 마태복음 22:1-14절에서 주어진 비유담을 읽어라. 그들이 옳은 "무리" 안에 있을지라도, 그들이 죄를 이기고 승리를 받아들이고 좋은 밭과 같이 창고에 들어갔을지라도 - 여전히 체질이 계속 진행 중이므로, "결혼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은 밖으로 내쫓김을 당할 것이다. 승리는 그대를 자유롭게 하고 인장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러나 역시 그대의 이름이 하늘과 땅의 책들에 기록되는 절차가 완전하여야 한다.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셋이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요, 이 셋이 하나니라. 또 땅에서 증거하는 것도 셋이니, 영과 물과 피요, 이 셋은 하나 안에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7,8) 영원하고 중대한 요소들의 증거가 되는 것을 **하늘과 땅에서** 찾아야 한다. 이것에 대한 중요한 견해가 다윗의 열쇠이고, 내가 장차 기록할 기사에서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우리가 검토할 것이다. 열쇠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늘의 문들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한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다윗이 참으로 유다 지파였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결론 지을 수 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상태를 알고 있다, 이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필요로 한다. 우리의 책임은 그분의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그분의 재림을 촉진시켜야 됨을 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는 안 되고, 그분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으며, 우리가 그분의 권한이 필요한 것을 안다 - 충실한 증인이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서대로 그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여야 한다. 우리가 깨달은 것은 144,000명이 구성되어서 인장을 받고, 살아 있는 자들의 마지막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갖추어지고, 또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 앞에서 평화롭고 기쁘게 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12 지파들의 **이름들** 아래에서 그 숫자대로 구성된 자들이 유일하게 인장을 받게 될 것에 대하여 우리가 읽었다. 유다 지파, 창조 제 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가 말하기를, "그대의 상속권이 갖추어져 있다. 우리에게 오라,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주장하자. 참된 교회 기록부에 그대의 이름을 쓰인하라. 그대의 이름을 계보에 추가하여 모든 이스라엘에 총계가 될 수 있게 하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이곳에서 칼데아인들의 땅으로 보낸, 유다의 사로잡혀 간 자들을 이 좋은 무화과들같이 그렇게 인정하리라." (에레미야 24:5)

우리가 이 기록을 펴서 그대에게 도전한다.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네게 보여 주리라." (계시록 4:1) 우리가 또 하나의 성경 구절로 종결한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리서** 너희에 대하여 증거를 삼아 네 앞에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두었은즉, 그러므로 나와 네 자손이 살려면 생명을 택할지니라." (신명기 30:19) 선택권에 결정은 그대에게 있다. 바꿔 말하면: 그대는 희생자가 될 수 없다! 이 세상이 소멸되지만, 그대는 소멸될 필요가 없다. 그녀에게서 나와서 분리하라, 깨끗하라, 그러면 야계서 그대를 받아들일 것이다. 그대의 이마에 그분의 인장을 받아라 (계시록 7:3), 그분이 그대의 지파 안으로 그대를 부르실 것이다. 오늘 유다가 으르렁거린다, 그러나 이것이 승리에 대한 외침이고, 항거하는 외침이다. "젊은 사자들이 그들의 먹이를 쫓아 으르렁거리며 (영문) 그들의 식물을 하나님께로부터 구한다." (시편 104:21) 우리가 이 세상 사물들 안에서 위로를 받지 않는다, 우리의 상속은 다른 곳에 있고, 우리의 상속이 야계로부터 있으므로, 또 그 분향을 바라보고, 우리의 것으로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그 땅에 증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이름들이 하늘에 기록되었다... 그리고 이 지상에 기록되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에레미야 21:8)

David 데이비드

더 연구하고 싶은 분은 인터넷을 보세요. csda-korea.org